

세계는 지금 '통신출판'의 시대

초기 단계 넘어 정보통신망으로 제작·배포·판매까지

박태건

문화일보 국제부 기자

며칠전 《뉴스위크》지에 '서구문명의 정수'라 불리는 영국 브리태니카를 다룬 기사가 실렸다. 기사 요지는 간단했다. 최근 붓물 터지듯 쏟아져나오는 경쟁사들의 백과사전류 전자출판물 때문에 유서깊은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태니카'가 부도 직전의 위기에 몰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산업계에서는 《뉴스위크》지 기사가 나오기 오래 전부터 브리태니카의 몰락은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왔다.

'지성계의 제왕' 브리태니카의 몰락

브리태니카사는 1768년 설립 이후 4,400만 개의 단어를 수록한 32권짜리 백과사전으로 지난 200여년간 전세계 지성계의 제왕으로 군림해왔다. 이 전집의 가격은 1,500달러, 크케 부담이 가는 가격이니, 기업인과 지식인들은 서재나 사무실에 권위의 상징으로 이를 들여놓았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브리태니카는 더 이상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못하고 있다. 값싸고 사용하기 편리하며 멀티미디어 자료로 중무장한 CD 롬 타이틀이 쏟아져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현재 브리태니카 백과사전도 CD 롬 타이틀로 제작돼 판매중이다. 그러나 브리태니카 CD 값은 경쟁사들의 제품보다 10여배나 비싼 995달러이고, 멀티미디어 사운드와 그래픽도 실려 있지 않다. 종이 전집에 뽀뽀히 실려 있던 활자 단어만 고스란히 CD에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

반면에 경쟁사들의 제품은 다르다. 대표적 예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1994년 초 《엔카타》라고 이름붙은 백과사전 CD 타이틀을 불과 70달러에 시판하기 시작했다. 이 CD에 담긴 내용은 수백년 동안 다듬어진 브리태니카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고, 수록 단어도 브리태니카의 5분의 1인 900만 단어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7,300여장의 사진과 삽화, 동(動)화면, 비디오, 8시간 분량의 오디오와 2만6,000여개의 가사가 담겨 있어 입체학습을 가능케 하고 있다. 또 브리태니카의 경우 수정본을 내는 데 수년이 걸리는 반면에 《엔카타》는 해마다 최신 정보를 추가 삽입할 수 있다.

더욱 가격은 한질당 1,500달러나 하는 브리태니카의 21분의 1밖에 안되는 70달러에 불과하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은 엔카타 출범에 즈음해 "엔카타 제작비 가운데 CD 값은 불과 2달러밖에 안된다"면서 "인쇄비와

1768년 설립 32권짜리 백과사전으로

지난 2백여년간 전세계 지성계의

제왕으로 군림해온 '브리태니카'가

간편하고 저렴한 CDE타이틀 《엔카타》에

밀려 부도 직전의 위기에 처했다.

이는 앞으로 초정보시대에 출판

잡지계가 직면할 어려움을 보여주는

작은 예에 불과하다. 전세계

전자네트워크를 통해 전자 거래와

판매가 시작될 날도 멀지 않았다.

종이값만 150달러에 달하고 영업사원들에게 최소한 400~500달러의 판매수당을 나누어 줘야 하는 브리태니카는 더이상 우리 경쟁대가 못된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엔카타를 PC의 기본 서비스 소프트웨어로 깔아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브리태니카의 아성을 급속히 무너뜨리고 있다.

브리태니카도 일찌감치 1980년대부터 전자출판을 생각했었다. 그러나 고가의 종이 백과사전을 팔아 생활하던 판촉사원들과 판촉출신 중심 간부들의 반발이 거셌다. 그 결과 CD화를 차일피일 미뤄오던 브리태니카는 빌 게이츠의 기습으로 조만간 파산해야 할지도 모를 절대위기에 몰리게 된 것이다.

'통신출판의 시대' 도래 예고

브리태니카의 최근 몰락은 앞으로 초정보시대에 출판잡지계가 직면할 어려움을 보여주는 자그마한 한 예에 불과하다. 뉴욕의 출판 예이전시인 리처드 커티스는 "앞으로 10~15년 후 전체 출판물에서 전자출판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50%를 넘어설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 그는 특히 조만간 전자출판이 CD 롬 타이틀로 제작되는 초기적 단계를 뛰어넘어, 인터넷 같은 국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작, 배포, 판매되는 단계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른바 '네트워크 퍼블리싱(통신 출판)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네트워크 퍼블리싱'은 이미 정보대국 미국 각지에서 활발히 추진중이다. 인터넷 상용화 첫해인 1991년에 100여건에 불과하던 인터넷상의 전자출판이 1994년에는 400여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중에서 비상한 관심을 끄는 것

은 '사이버'와 '매거진(잡지)'의 합성어인 '사이버진(전자잡지)'의 출현.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디지털 세대를 겨냥한 《와이어드(WIRED)》라는 활자잡지를 펴내고 있는 와이어드 벤처사는 1994년 10월 말부터 온라인 잡지 《핫 와이어드》 시리즈를 시작했다. 내용은 뉴스를 비롯해 화랑 및 영화 정보, 여행기, 4단 만화 등 다양하다. 광고주는 현재 볼보, IBM, AT & T 등 14개사에 달하고 있다. 광고 계약기간은 3개월이며, 광고료로 월 1만달러씩을 받고 있다.

오릴리 & 어소시에이트는 인터넷 위에 《지구촌 네트워크 항해자(Global Network Navigator)》라는 계간 멀티미디어 정보지를 출판, 일반에게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이 출판사는 그대신 이 전자출판물에 광고를 싣는 기업들에게서 3개월간 광고료로 5,000달러씩 받고 있다.

브래드 템플톤이 공동주인 '클레리네트' 전자출판 네트워크는 빅톨 위고 출판상을 받은 출판물을 인터넷에 무료로 올리고 있으며, 대중적 인기가 높은 유명작가의 SF 작품도 서비스하고 있다. 1991년초 걸프전 속보를 무료 서비스한 것을 계기로 지명도가 높아져 급성장하게 된 이 회사는 전자출판에 만족치 않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4대통신 중 하나인 UPI 뉴스 등을 애플과 제록스 등 3만여 회원사에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일렉트로닉 뉴스스탠드'사도 《뉴욕커스》와 《레퍼블릭스》의 기사를 비롯해 주요 논설과 해설을 인터넷으로 무료 서비스하고 있다.

성인잡지의 대명사인 《플레이보이》지도 새로 발간되는 신간의 기사와 사진을 1994년 12월부터 인터넷으로 전세계에 판매하기 시작, 예약 첫날 전세계 30개국에서 10만명의 전자독자를 확보하는 기대 이상의 큰 성공을 거두었다. 전자출판 서비스를 시작한 첫날 회사측이 예상도 안한 북부 스웨덴 등에서까지 수백명이 무더기로 정기구독을 신청하는 등 통신망이 마비될 정도로 열기가 대단해 인터넷의 가공할 위력이 회사측은 새삼 놀랐다.

미국 대형출판사 맥그로힐 역시 1994년 12월부터 자사가 발행하고 있는 경제주간지 《비즈니스 위크》의 기사를 발매 전에 미국 PC통신망 '아메리칸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기 시작했다. '비즈니스 위크 온라인'이라 이름 붙여진 이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은 금요일 자판대에 나오는 잡지를 하루 먼저 목요일 저녁

에 볼 수 있게 됐다. 이들이 북미(北米)권 기사 전문 외에 해외판에만 실리는 기사와 사진, 그래프 등도 접할 수 있게 됐다.

"전자출판의 무풍지대는 없다"

최근 매주 1개 이상의 교육용 CD 롬 타이틀을 만들어낼 정도로 전자출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여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전자출판 시대의 개막이 대단히 빠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예언의 근거로 그는 "1998년에는 CD 롬 드라이브를 장착한 멀티미디어 PC 보급률이 미국은 100%, 일본은 60%에 달할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PC 보급률이 일본과 거의 비슷한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출판 시대의 도래는 결코 남의 이야기만도 아닌 셈이다.

미국의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회사인 폴리오 코퍼레이션이 올 3월초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0만건의 출판저작권을 확보하고 있는 구미의 9,000여 출판사들은 자신의 저작권 상품을 디지털화해 인터넷 등 각종 국내외 통신망을 통해 판매 또는 유료이용화할 예정이다. 폴리오에 따르면 올해 중반부터 미국이나 유럽 국내 네트워크에서는 이같은 전자거래가 실현되고, 내년 중반경에는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시작될 전망이다.

"언어권이 다르기에 전자출판의 파고가 뒤늦게 미칠지는 모르나, 언제까지나 무풍지대일 수는 없다"는 게 우리의 현실임을 냉엄히 인식해야 할 때이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문의
732-1433

* 1년분(22호분)
30,000원
* 반년분(11호분)
16,000원